

---

# 2019 제주-하이난 포럼 출장 보고서

---

2019. 1

제주연구원

# 1. 포럼개요

## 1) 2019 제주-하이난 포럼

### □ 포럼 배경

- 1995년 제주-하이난 간 자매도시 우호관계 협정 체결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해왔음
- 2015년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에 선정되어 제주와 하이난에서 각각 '하이난의 날', '제주의 날' 인문교류행사를 개최하였음
- 이후 제주도와 하이난성의 우호협력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2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회의 경험 교류(보아오-제주포럼), 경제 공동발전과 지역 협력 사업의 지속적 발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추진하고 자함
- 제주-하이난 자매도시 우호관계 협정 체결('95. 10. 6)
- 「제주도-하이난성 우호협력 협약서」 체결('15. 10. 5)
  -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선정 :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인문교류 행사 개최
- 「제주도-하이난성 우호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18. 11. 2)
  - 국제회의 경험 교류(보아오-제주포럼), 경제 공동발전과 지역 협력 사업 지속적 발굴·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 포럼 목적

- 본 포럼은 제주와 하이난성 간 실질적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양 지역 간 경제 공동발전과 지역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협의를 하기 위해 관련 부서 간 실무협의체 구성·교류 기반 구축
  - 관광, 문화, 체육, 경제,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보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교류 지속 추진 기반 마련
  - 전문기관 및 민간차원 교류 확대 추진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협력

- 이를 위해 제주 - 하이난 주요 기관별 교류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포럼 개요

- 포럼 명: 2019 제주-하이난 포럼
- 주제: 제주-하이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방안
- 기간: 2019. 1. 9(수)~10(목)
- 장소: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 참여 기관:

<표-1> 2019 제주-하이난포럼 참여 기관 리스트

구분	한국	중국
지도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하이난성인민정부
주최 기관	제주연구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하이난성 관광문화광전체육청
공동 주관	제주관광공사	하이난성 상무청
	제주상공회의소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컨벤션국
협력 기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하이난 개혁발전연구기금회

- 주요 활동:
  - 「2019 제주-하이난 포럼」(제주연구원·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주최)
  - 분과회의(관광교류분과, 전시컨벤션 교류분과, 싱크탱크 교류분과)
  - 산업시찰 및 실무 협의(제1회 하이커우 국제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엑스포,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최지 방문 등)

## 2. 포럼 성과

### 1) 2019 제주-하이난 포럼

- 2019년 1월 9일, '제주-하이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플랫폼 구축' 주제로 '2019년 제주-하이난 포럼'이 하이난성 하이커우시에서 개최되었음
- 이번 포럼은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공동으로 주최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대통령직속 균형발전연구원, 제주관광공사,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컨벤션센터,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하이난성 인민정부, 하이난 관광문화체육광전청, 하이난 공상연합회, 하이난 컨벤션국 및 컨벤션센터, 남해연구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기금회, 하이난성 상무청 등 주요 인사들이 이번 포럼에 참석하였음
- 1세션 전체회의
  - 오전 1세션 포럼에서 김동진 제주연구원장은 좌장으로 사회를 맡아 전체회의를 진행하였음
    - 우스춘(吳世存) 중국 남해연구원장, 왕리밍(汪黎明) 하이난성 관광문화체육광전청 부청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쉬핑(徐鳳)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전문부주석, 차이취(蔡偁)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컨벤션국 국장,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 등은 제주와 하이난 간 교류협력에 관련 주제발표를 하였음
    - 이어서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판리핑(范利鋒) 하이난성 상무청 외국자본유치처 부처장 등분들은 발표주제에 관련 토론을 진행하였음

■ 발표자 내용 요약정리

○ 우스춘(吳士存) 중국남해연구원 원장

- 중앙정부의 12호 정책문건에 따르면 하이난성을 국제관광 소비 중심지역으로 건설하고자 하며 실제 관광인프라, 공공서비스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제주가 하이난 보다 더욱 우수하여 상호 협력 발전의 기회 기대

▶제언: 해상실�크로드 이니셔티브, 섬관광포럼·보아오포럼, 정부·민간차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제주연구원, 관광 분야 인재양성 및 생태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 필요

○ 왕리밍(汪黎明) 하이난성 관광문화관전체육청 부청장

- 하이난은 관광산업, 숙박,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전을 추진
- 10대 관광상품 체계 구축(크루즈·요트 관광, 신혼여행 등), 25개 글로벌 호텔 그룹의 61개 브랜드 호텔 운영, 74개 국제항공노선 개통(영국, 호주, 러시아, 한국, 동남아 등), 섬일주 고속철도 건설, 59개국 무비자 정책 추진

▶제언: 국제여행 목적지인 제주의 경험과 정책,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하이난에 주는 의의가 높을 것으로 기대

○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 제주와 하이난은 다양한 교류 진행, 단 관광부문 교류 상대적 부족

▶제언: 제주-산야-하이커우 간 항공노선 개통, 부정기 항공편 논의 가능, 제주-하이난 간 크루즈 개항, 온·오프라인 관광 마케팅 합작, 제주 국제크루즈 포럼 상호 협력 제시

○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 제주상공회의소 개요, 설립목적, 조직구조, 주요사업에 대한 소개

▶ 제언: 매년 제주와 하이난 간 상호방문, 교류·포럼 및 학술교류 추진 필요, 박람회·전시회·수출박람회 등 상호 참가 희망, 하이난성 공상 연합회와 교류 및 협력 강화 의지 제시

○ 쉬핑(徐鳳)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부주석

- 하이난성 공상연합회 소개(1991년 6월 설립, 285명 상임위원, 10만여 명 회원, 2만 8천여 개 기업회원, 270개 단체 회원)
- 하이난성 2018년 상반기 민간경제 전체 세수입 중 80% 이상 공상연합회 관련 기업, 88개 국가·지역의 공사업 조직과 네트워크 구축

▶ 제언: 매년 정기적인 교류 환영, 진일보 협력 강화, 경제·무역·기술 등 영역의 협력 추진으로 공동발전 및 하이난 자유무역항 기회 공유 기대

○ 차이차오(蔡俏) 하이커우시 컨벤션국 국장

- 하이커우시 컨벤션국 소개(2012년 설립, 국내 최초 컨벤션 기구)
- 하이커우시 전시 및 회의업 성과:
  - ※ 2017년 8,002회 개최(31% 증가, 100억 위안 수입), 2018년 9,033회 개최(17% 증가, 123억 위안 수입)
- 하이커우 컨벤션 사업의 마케팅 방안 소개: 슬로건, 웹드라마, 도서, 노래, 활동(음악, 문화교류 등), 강연 등 6가지 방안 연계 마케팅 추진

○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 제주지역 마이스 산업 현황 소개(2017년 139회 국제회의 개최)
- 국제컨벤션센터 개요: 1997년 설립(전국 최초), 시설 규모(4,300여 명 수용공간 등), 주요 업무 소개

▶ 제언: 협력과 교류 강화, 컨벤션 관련 정보 교류, 공동마케팅, 전략 및 성과 공유, 인재양성 협력 등 5가지 방안 제시

## <표-2> 2019 하이난 포럼 제1세션



### □ 개막식

- 포럼 개막식에서 마오수빈(苗樹彬)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집행원장은 사회를 맡았으며, 왕용(王勇) 하이난성 정치협상위원회 부주석,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동전 제주연구원 원장의 개막식 발언이 있었음
- 왕용 부주석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하이난과 제주 실무협력을 추진한 것은 한중 협력과 하이난과 제주 양 지역 협력에 대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였음. 왕부주석은 현재 하이난이 국제적인 관광소비 중심지역의 건설을 가속하고 있으며, 하이난과 제주는 크루즈관광, 문화 관광, 건강 힐링 관광, 레저관광 등 분야의 공동마케팅 및 다원적인 협력 등을 통해 '하이난-제주 자유 관광 복합체'를 조성하고 양 지역 간 시너지효과를 증진하고자 하였음
-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하이난성과 제주도의 자연자원과 환경이 많은 유사점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명한 휴양관광의

섬으로 양지 간 우호 협력 관계를 맺은 이래 24년간 깊은 우정을 유지하였다고 강조하였음. 현재 제주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고, 하이난은 자유무역시험구 및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양지역은 MOU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였음. 이번 포럼은 양지역 간 깊은 협력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은 새로운 출발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음

- 김동전 제주연구원은 중국 (하이난) 개혁발전연구원과 손을 잡고 지방정부 간 실무적인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김동전 원장은 "제주-하이난 포럼을 통해 쌍방 교류플랫폼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문교류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전개해 양지 공동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제안하였음. 김동전원장은 제주연구원과 중국 (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공동 협력에 대한 4가지 건의를 제기하였음.
  - 첫 번째, 국제 자유도시와 자유무역항 건설 추진 관련 크루즈 및 스포츠 관광산업, 해양산업 및 환경정책, 신재생 에너지와 블록체인 연계 산업육성 등 관련 선진 정책을 공유 플랫폼 구축하자
  - 두 번째, 하이난성 전도(全島) 일체화 통일계획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제주 시사점을 찾아 나가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 세 번째, 공공외교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하여 인적·문화적 국제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네 번째, 자본·사람·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을 지향하는 '제주-하이난 통합 경제협력 비전 2030'이란 과제를 공동으로 연구하고자 함
  
- 마오수빈(苗樹彬)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집행원장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현재 새로운 대외개방 형세와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하는 배경하에 한중협력으로 세계화와 국제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양측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음

- 하이난성과 제주도는 서비스무역의 중심으로 개방적인 협력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중요한 협력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하이난을 한중 서비스무역 개방 협력의 시범지역으로 만들기', '하이난과 제주 서비스무역 일체화 추진', '하이난-제주 자유 관광 협력체', '한중 의료건강 협력 시범기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연선 도서 간 인프라 상호연결 추진' 등 5가지 건의안을 제기하였음
- 포럼에서 제주상공회의소와 하이난성 공상연합회(총상회)는 MOU를 체결하였으며, 제주와 하이난 정상학계 대표 200여 명이 이번 포럼에 참석해 양 지역 간의 관광협력, 산업협력, 기업협력, 기관협력, 컨벤션 사업협력 등 분야의 협력에 대한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음

<표-3> 2019 제주-하이난 포럼 개막식



<표-4> 제주상공회의소-하이난 공상연합회 MOU 체결식



- 중국 언론매체인 신화사, NEWS CCTV, Knews, 경제일보 신문망, 하이난 온라인미디어 TV, 중국신문망, 해남일보 등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면서 향후 역할 및 협력 강화 기대
- 하이난성 방송국에 소속된 관광위성TV(旅游衛視), 산사위성TV(三沙衛視)의 취재로 중국 중앙방송 CCTV 방영

<표-5> 2019 제주-하이난 포럼 - 중국 중앙방송 CCTV 방영



<표-6> 2019년 제주-하이난 포럼 VIP 간담회와 단체 사진



VIP 간담회-1



VIP 간담회-2



## 2) 2019 제주-하이난 포럼 분과회의 - 지속가능한 싱크탱크 협력방안

- 2018년 1월 9일 오후, 제주연구원,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한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협력방안' 주제로 '2019 제주-하이난 포럼'의 분과회의를 진행하였음
-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진영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소통 부장, 정지형 중국연구센터장, 이중화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 유법민 한국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연구위원회 실장, 하수정 한국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연구원, 이현태 한국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샤오우(宋曉梧) 중국 경제체제개혁 연구회 전(前)회장, 인중이(殷仲義)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원장 고문, 장페이(張飛)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부원장, 간루(甘露)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하이난 경제연구소장 등은 이번 분과회의에 참석하였음
- 회의에서 간루(甘露)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하이난 경제연구소장, 이중화 제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책임연구원, 이현태 한국 대외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하이난-제주 관광협력 심층적 추진", "지속 가능한 제주-하이난 공동발전을 위한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의 협력방안", '중국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 신북방정책 연계방안' 등 주제를 발표하였음
  - 회의에서 각 기관 참석자는 제주-하이난 협력 관련 산업협력, 관광 협력, 민간협력, 한반도협력 등에 대한 깊은 토론을 진행하였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간루(甘露) :
  - 제주와 하이난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하이난 자유 무역항 건설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연계하여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건강양생레저관광, 및 관광업 인재육성 등 4가지 방면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 제주와 하이난 간 심층적 협력을 위해 양 지역의 관광서비스 표준화, 직항노선 개통,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환경조성, 관광 소비 관련 결제수단 편리화 수준 향상 등을 중점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연구원 이중화: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라 자치분권, 관광산업, 교육 서비스, 의료서비스, 청정 1차산업, 외국자본 유치, 지역개발, 환경 보전 등 8개 영역에서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음
-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양 지역은 제도체제 설계, 전기자동차, 청정 환경 보전, 청정해양, 관광, 블록체인 등 영역의 협력기회를 공동 모색할 수 있음
-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로서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협력모델 발굴, 민간교류 활성화, 신흥 산업 협력 강화, 한반도 협력기회 모색 등을 공동 추진할 수 있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현태:

- 한국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등 대외협력 발전 정책이 중국 정부 제시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협력기회를 찾아내기가 필요함
- 한국은 신북방정책은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아직 실질적인 협력이 없지만, 지린성,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등 지역의 한국과 협력하려고 하는 수요가 매우 높음
- 한국 기업들이 역시 중국과 통상협력수요가 높으며, 양국 간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향후 쌍방의 적극적인 협력교류를 통해 하이난과

제주, 한국과 동북 3성 간의 새로운 협력모델 도출 및 협력수준 제고를 추진할 수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송샤오우(宋曉梧) :

- 현재 국제 역글로벌화와 중미 무역전쟁 등 배경하에 한국과 중국은 오히려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좋은 시기임
  - 제주와 하이난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유명 관광지이며, 독특하고 고유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지역은 관광 분야의 상생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성장을 이루어질 수 있음
  - 하이난은 의료건강산업의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선진 의료기술, 고급 의료 인재, 국제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현재 영리병원운영이 허가되었으며, 향후 양 지역은 의료건강산업, 실버산업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제주연구원 강창민:

- 제주와 하이난은 지난 11월에 MOU 체결 이후 양 지역의 협력이 지속해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제주-하이난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한 것은 향후 양 지역의 협력하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제주와 하이난은 해양도시의 지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해양경제 도시의 발전과 성장이 양 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하는 과제임
  - 지난해 제주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관광협력방안이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외부적인 영향요인이 존재하지만 향후 양 지역의 관광산업 협력이 어떻게 더욱 심층적으로 추진방안에 대한 공동의 고민이 필요함
  - 양 지역은 모두 관광객 규모를 중시하고 있지만, 다른 측면으로 고려하면 관광객 규모보다 관광서비스를 더욱 중요하고, 양 지역은 향후 관

광서비스의 표준화, 고품질화, 일체화에 관한 공동 협력이 필요함

- 한편, 관광협력 이외 외국자본 유치, 해양환경 관리, 해양경제 성장, 청정에너지개발 및 이용, 지하수 관리와 보호 등 다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한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유범민:

- 많은 학자와 전문가는 제주와 하이난의 이론적인 협력을 계속 제시하였는데, 이론적인 협력보다 실질적인 협력계획, 협력방안의 제정과 시행한 것은 더욱 중요함
- 한국과 중국은 국제무역 시장에서 상호 의뢰하고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이며, 제주와 하이난 간의 지역무역에 관해 연구와 협력이 더욱 의미가 있음
- 하이난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동남아와 한국 간의 허브 지역으로서 양 지역 간의 다양한 협력방식을 모색할 수 있음
- 하이난은 한국에서 유명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며, 따라서 하이난의 한국홍보와 양측의 공동마케팅 등이 필요함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인중이(殷仲義) :

-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 중 과연 중국을 포함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 간 교차점은 모두 중국 역외에 있으며, 즉 한국은 북방 러시아를 중심으로, 남방 동남아국가를 중심으로 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북한과 한반도정세 안정 등 문제로 인해 한중협력관계가 불안정하며, 한국은 중국과 깊은 협력을 추진하려고 하면 더욱 큰 노력을 필요한 다고 생각함
- 더욱더 깊은 협력을 위해 일반적인 학술세미나 형식의 교류를

탈피하고 실무적인 공동연구주제를 발굴하고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 시기, 단계, 추진 방향 등 세부적인 연구검토를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한국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하수정

-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도농발전 불균형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경제구조의 불균형문제도 역시 중국이 해결하여야 함
  - 하이난의 산업구조는 농업을 중심에서 향후 관광 및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하이난은 향후 다분야의 다변화를 대응 방안과 성장방안이 필요함
  - 한편, 한국은 현재 인구노령화 문제를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 그리고 하이난도 향후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인재유치 정책, 출생률 제고, 인구구조 최적화 노력, 청년 행복 증진 등 분야의 연구에 관한 연구기관 간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함

■ 제주연구원 강진영

- 제주와 하이난은 지역개발, 사회관리, 주민 행복 증진, 균형발전 등 관련 주제에 관한 협력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 하이난성은 자유무역항 건설 배경하에 주민의 생화 품질과 편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른 지역발전 불균형, 소득분배 불균형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성장 목표는 도민의 행복 증진한 것이며, 일부 관광기업의 영업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생활 방해와 주민 불만 등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 해소조치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고려할 수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광시안밍(匡賢明)

- 제주와 하이난은 서비스무역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산업협력 이외 서비스 표준화 제정의 협력, 서비스업과 관련 무역에 대한 감독 관리체계 구축의 협력, 블록체인 관련 금융 혁신과 응용의 협력 등 분야의 협력이 강화할 수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허동니(何冬妮)

- 중국(하이난)발전연구원은 과거에 '범남해 지역 경제협력권역 이니셔티브(泛南海區域經濟合作圈的倡議)"를 제시한 바 있으며, 제주 연구원과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남해지역 경제권역의 건설에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제주는 개방형 경제체계이며, 하이난은 현재 개방형 경제체계에 접근하고 있음
- 제주도가 현재 영리병원 허가에 따른 이슈는 하이난성에서도 다른 유사한 문제점을 직면하고 있으며, 즉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무장에 추진과 제도체계 개선 등에 관한 공동연구를 검토할 수 있음

■ 제주연구원 정지형

- 제주와 하이난 간 관광산업 협력 이외 한중 FTA를 통해 양 지역의 협력 모델을 모색하고 법률적인 협력에 관한 검토와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더군다나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협력을 공동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장페이(張飛)

- 장페이(張飛) 부원장은 분과회의에 대한 3가지 요약을 제시하였음
  - 첫째는 한중협력의 영역에서 중국 일대일로와 한국 신북방정책 연계를 추진과 의료제약, 현대농업, 경공업, 국제물류 분야의 협력을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제주-하이난 협력의 중점 분야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기초인프라, 관광서비스, 전기자동차, 환경보호, 건강 힐링, 블록체인 등 분야의 협력을 공동 추진함

- 셋째, 도서 경제체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며, 특히 주민 행복감 증진과 환경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함
- 넷째, 중국(하이난)발전연구원, 제주연구원, 한국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등 기관 간 공동연구를 발굴하고, 향후 관광상품 공동개발, 지하수 및 환경관리, 해양폐기물 종합활용, 관광산업 고도화 발전 등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음

<표-7> 2019년 1월 9일 제주-하이난 포럼 분과회의



분과회의-1

분과회의-2

### 3) 제1회 하이커우 국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엑스포 방문

- 2019년 1월 10일, 제주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 ICC제주 등 방문단은 중국 제1회 하이커우 국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엑스포를 방문하였음
- 하이커우시 컨벤션국 대외협력처장 류제(劉捷) 및 중국 국제무역 촉진회 자동차업 분회·중국 국제상회 자동차업 상회 종합처장 구준자오(谷俊嬌) 등은 하이커우시 컨벤션 전시장과 제1회 하이커우 국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엑스포 현황을 소개하였음

- 엑스포에서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은 하이커우완바오(海口晚報) 경제부 기자 등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주는 역시 제로섬을 추진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의 이용과 보급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 또한, 제주도는 매년 국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엑스포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의 생산기업, 판매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음
- 2019 제주-하이난 포럼의 개최한 것은 한중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제주와 하이난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므로, 향후 양 지역 간 다분야 교류협력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주와 하이난 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산업, 그리고 환경보호 등 방면의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연계할 수 있음

<표 8> 제1회 하이커우 국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엑스포 방문



- 하이난은 '국가급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응용 시범구(國家級新能源汽車應用示范區)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2020년까지 하이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규모는 약 3만 대로 보유할 것이며, 충전 인프라 설치 규모는 약 2만 8,000개로 예상됨
  - 2030년까지 하이난성의 전체 자동차의 에너지 청정화가 실현할 계획임

#### 4)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최지 방문

- 2019년 1월 10일, 제주연구원, 제주상공회의소, ICC제주 등 일행은 하이난성 치옹하이시(琼海市) 보아오현(博鳌縣) 보아오 아시아 포럼 개최지를 방문하였음
  - 천성파(陳聖法) 치옹하이시(琼海市) 부시장은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의근 ICC제주 대표 등을 비롯한 제주방문단 일행을 접대하였으며, 치옹하이시 및 보아오 아시아 포럼의 현황을 소개하였음
  - 천성파 시장을 비롯한 치옹하이시 지도부는 김동전 제주연구원장 등 일행과 좌담회를 진행하여 양 지역의 투자, 통사, 교류, 쉐넌션, 건강, 의료 등 다분야의 협력기회를 논의하였음

<표-9> 2019년 1월 10일 보아오 아시아포럼 개최지 방문



#### 5) 하이난 산야시 썬루오촌(三羅村) 방문

- 김동전 제주연구원장을 비롯한 제주연구원 일행은 2019년 1월 11일에 하이난 산야시 썬루오촌(三羅村; 1975년 조선촌에서 썬루오촌 변경) 방문하여 과거 일제침략 시기, 중국 산야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조선 동포를 애도하였음
- 일본 육·해군은 1939년 2월에 하이난을 침략하였으며, 일본 기업은 일본 점령하에 있던 하이난에서 일본군과 함께 자원 약탈과 주민 학

대를 자행하고, 조선과 대만, 중국 대륙 각지에서 연행한 사람들을 강제 동시키고 학살하였음

- 일본 군대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1943년 3월부터 조선 각지 형무소에서 수감 기간이 몇 년 남은 수형자들을 선발해 '남방 파견 조선보국대'라는 이름의 단체를 조직하여 하이난에 보냈음
  - 이들은 하이난에서 광석 채굴, 비행장 건설, 도로와 교량 건설 등에 종사하다가 대부분 희생되었음
  -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조선보국대 대원들은 해남도 남쪽 썬야시 교외의 난딩촌(南宁村)에 집결해 군용도로, 동굴(갱도 진지) 건설 등에 동원된 뒤 1945년 8월 패전 직전 학살되었음

<표-10> 2019년 1월 11일 산야시 썬루오촌 방문



□ 기념비 내용:

- 1942년 일본침략군의 박해를 받아 숨진 조선 동포 1,000여명이 이곳에 매장되어 있다. 우리동포의 죽음을 애통하게 생각하고 마을 이름을 "조선촌"이라 개명하고 현재까지 관리하고 보존해 준 당지 중국인민정부에 대한민국 국민과 유족들은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한국신우회사가 이 유적지를 개발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허락한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중한 양국 국민들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신우농업종합개발유한공사  
1999년 9월 1일